

삶을 기억하는 공간 매거진 - 우드플래닛

WOOD

P L A N E T



건축가 이타미준 작품

우리는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한 작은 질서입니다.

“이해의 창조가 <우드플래닛>의 시작입니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목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소비자는 배울 기회가 없었고
공급자는 그 가치를 논할 마당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목재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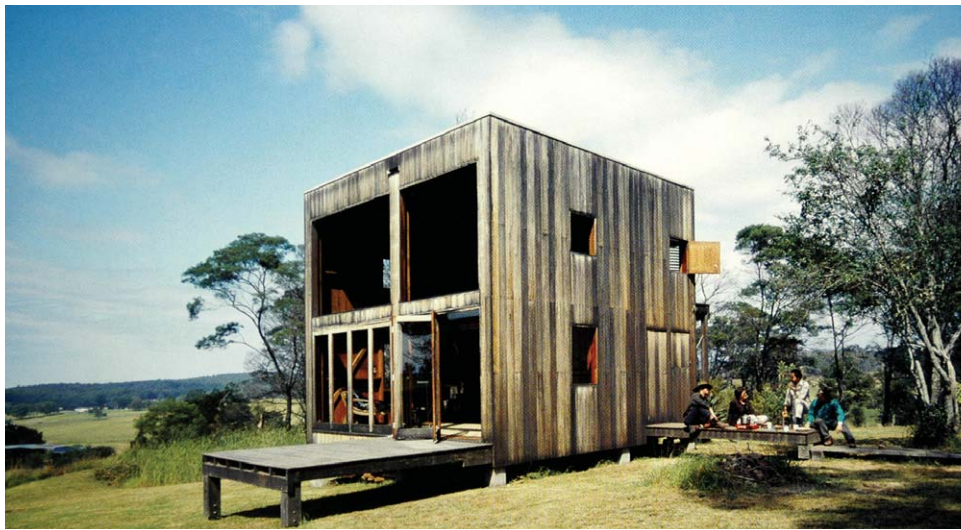
썩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방부목이 어느 날 부서진 것처럼
그렇게 가치없는 희망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가슴에 잔뜩 박힌 용이를 두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부터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앞 세대의 선배들과 미래를 책임질 후배들을 위해
2012년 2월 월간 <우드플래닛>이 가장 먼저 닳을 올립니다.

숙성을 통해 제 가치를 높이는 원목처럼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제대로 된 잡지 한 권 내어놓겠다는 것
이것이 <우드플래닛> 편집진이 던지는 출사표입니다.

“Here I am, 이제는 제대로 된 목재 문화를 꽃피울 때입니다.”

<우드플래닛>의 기사와 사진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연이 머무는 곳에 사람을 쉬게 하라”



행복한 삶을 일구는 따뜻한 커뮤니티 (주)라이프폼이 새롭게 목재 중심의 문화 잡지를 발간합니다. 건축+인테리어+목조각+공예+생활품 등 나무가 이용되는 삶의 공간을 자연의 호흡으로 달려갑니다.

(주)라이프폼은 2007년부터 단행본과 에코매거진 <월간숲>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소박한 삶의 멋과 여유, 자연의 가치, 숲과 나무가 인간에게 던지는 효용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월간 <우드플래닛>은 목재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단 하나, 최초의 순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의 소재 '목재'가 주는 삶의 공간을 통해 한국의 건축 문화는 다시 씩여질 것입니다.

WOOD-CULTURE를 바꾸고 CULTURE-WOOD를 가꾸다



Wood Material City

- 나무가 부르는 시와 음악으로 당신을 기억하리라.
- ⇒ 우드플래닛은 우드 스페이스를 통해 삶의 가치가 충만한 대안적 도시공간을 모색합니다.

Wood Ecology

- 자연 소재인 목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왜 나무를 선택하시나요?”
- ⇒ 우드플래닛은 목재가 지닌 생태적 효용과 예술적 기능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Wood Living

- 새로운 감성과 호기심을 불러온 목재는 자연 속에 살길 원하는 모든 이의 욕망입니다.
- ⇒ 누구나 나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드플래닛이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Wood Edu

- 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배움의 장입니다. 손끝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 ⇒ 우드플래닛은 도시를 살아가는 이들을 특별한 감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 Story W

“모든 목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었다”



장소 제공 상암동 투썸플레이스
원목 제공 유림목재 (02-3158-3131)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지 한 시간 반, 때론 웃고 가끔은 심각하더군요. 아니, 화를 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잡담, 험담, 농담 등으로 추리되는 언어들 한참 동안 내뱉더군요. 영원할 것 같은 그녀의 발성이 잦아든 후 찾아 온 침묵은, 너무나 길고 고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차가운 빨대에, 그녀의 뜨거운 호흡이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부드러우면서도 맛과 향이 뛰어난 에티오피아 커피 ‘아라비카’와 캄보디아산 최고급 목재 ‘티크’로 제작된 테이블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커피의 향과 함께 티크목재의 방재 성분인 실리카 향도 느꼈을까요?

우리의 삶이 늘 혼자인 것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난 오후 2시의 카페에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최고급 커피와 최고의 목재가 그녀와 함께한 것처럼…….

그녀의 오후 2시는,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를 돌아온 먼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Contents Planet



| | | |
|----------------|-----------------------------|-----------------------|
| Phase A | Wood - Activism theme | 주제를 통한 성찰 |
| Phase B | Wood - Activism story | 목재 이야기로 만나는 삶의 재발견 |
| Phase C | Wood - Activism space | 우드 공간의 가치 |
| Phase D | Wood - Activism environment | 우리 삶을 둘러싼 세상의 변화 |
| Phase E | Wood - Activism practice | 우드 건축 현장을 통한 깨달음과 재인식 |
| Phase F | Wood - Activism live | 우드 공간에 사는 삶 |
| Phase G | Wood - Activism info | 우리 주변의 우드 이야기 |

